

# 출장보고서

1. 출장자- 노기성 선임연구위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2. 출장지-호주 시드니, 캔버라
3. 출장목적: 도심 내 수목원의 역할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관련 과제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 4. 일시 및 방문 기관

- 일시 : 2011년 9월 27-10월1일(4박5일)
- 장소 : 호주 시드니 왕립식물원, 캔버라 국립 식물원

## 5. 면담자 및 참석자

- Troy Mason Acting manager, Royal Botanic Gardens & Domain
- Peter Byron General Manager, Australian National Botanic Gardens
- 진혜영 연구사, 산림청 국립수목원

## 6. 면담 및 활동 내용(시드니 왕립식물원)

- 대도시에 위치하는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 예산, 조직, 관람객의 구성 및 인원에 대해 논의

세종시에 수목원의 건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 참고 사항을 청취후 의견 교환

시드니 왕립식물원은 1816년에 30ha의 규모로 New South Wales 주정부 소속기관이고, Royal botanic gardens and Domain, Mt. Annan botanic garden, Mt. Tomah botanic garden 등 3개의 식물원으로 구성되며, Botanic Gardens

Trust에 의해 운영된다고 함.

- 오전 7시 -오후 8시까지 개방하나 계절에 따른 변동은 있음. 주요시설은 방문자센터, 교육센터, 전시온실과 가든샵 및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며,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하여 연간 500만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외국인 관람객이 많다고 함.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였음
- 총 15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식물분류, 생태, 원예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음. 예산은 주정부 60%, 자체수입 30%, 민간기부 10%으로 11백만 호주달러임. 입장료는 무료이고 주차료만 징수하고 자체수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웨딩이벤트 등으로 충당함. 단 Tropical Center 등 내부적으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정원이 있음. 현재 재정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함.
- 원예박물관은 없으나, 표본관(식물박물관의 전신에 해당함)을 운영하여 연구 및 일반대중에게 식물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음. 주요 연구 분야는 원예연구, 분류연구, 생태연구 및 식물병리연구 4개 분야이며, 30여개의 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연구 조직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음.
- 도시건설 초기에 수목원이 도심에 조성되는 것의 의의에 대한 질문에 이는 식물원이 식물보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했음. 도시민에게 자연교육,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빌딩 숲의 중앙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건설 초기가 아니면 확보 또는 확대가 어렵다고 하며, 식물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함.
- 이상의 의견을 교환한 후 향후 세종시 국립 식물원 건설 사업과 관련 식물원의 역할과 기능, 조직, 규모, 유의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함. 왕립 식물원이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도시인 세종시 수목원의 조성사업 예타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캔버라 국립 식물원)

- 호주 국립식물원은 본 예타사업의 대상지인 세종시와 같이 호주의 행정수도 캔버라 시에 위치하고 있어 본 예타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로 행정 수도에서의 수목원의 역할, 기능, 의의, 조직, 건설 당시의 주안점, 건설 시기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함. 이 수목원은 행정수도가 건설되고 난후 빈 공간에 설계 건설 되었다고 함. 1949년에 설립되어 1967년에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전체 면적은 90ha이며 40ha는 일반에게 공개하고 50ha는 bush forest로 보전되고 있다 함.
- ※ 캔버라는 전형적인 계획도시로 1908년 수도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서 공모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1913년에 착공, 1927년에 멜버른에서 수도를 옮긴 바 있음.
- Executive Director와 General Manager를 중심으로 총직원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목원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
- 호주 환경부 소속이나 연구기능은 CSIRO(국가과학산업연구기능, Commonwealth Science And Industry Research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설립한 CPBR(식물다양성 연구센터, Center for Plant biodiversity Research, Australian National Herbarium)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함.
- 도입시설은 국립표본관(National Herbarium), 도서관, 교육센터, 종자은행(Seed store), 증식원, 열대 전시온실 및 레스토랑, 가든 샵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연간 입장객은 56만명 정도이며, 행정수도 캔버라를 방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함.
- 주차료, 사진이용료, 교육서비스, 원예프로그램이용료, 식물원 내 부지 및 건물이용료로 수입을 포함하여 1년('10)예산이 10.448 million 호주달러이나 최근 재정지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자체 수입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함.
- 주요 연구 분야는 호주식물의 계통분류, 분계분석, Murray-darling 분지 생태연구 등이며, 연구결과는 전시원과 표본관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정원환경의 변화

에 대한 대중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음.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의 여건과 캔버라 국립식물원의 조성 배경 및 여건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도시조성 초기에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식물원 계획도 미리 수립하여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이후 국립 수목원 회의 결과와 시드니 왕립 수목원의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함. 대도시와 행정도시내의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연구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음. 그러나 행정도시인 캔버라의 국립 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향후 예타 조사 사업에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음.